

한글

그리글의 흥일인 오직이 잡지로

號四第·卷二第
【號月七】
1934

一 部 一 部
錢五十三金 錢五十五金

所行發
九二一洞花府城京
部版出會學語鮮朝
番六三〇一城京替振

계몽운동에 나선 학생 제군에게

우리들의 일가운데 무엇 하나 빠졌이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만, 그중에도 우리들은 너무나 내것을 등한히 하고 내것을 모르고 지난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크다란 수치의 하나이다.

지나간 그날에는 그래도 남에게 자랑할만한 찬란한 문화를 가져보지 않았던가? 그러던 이땅의 아들 딸들이 오늘 날엔 모든 것이 남에게 뒤떨어지고만 있으니, 이것은 오직 우리들이 너무나 내것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보라!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의 역사를 모르고 지나지 않았느냐, 우리의 글을 헌신짝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가슴 아픈 환경을 헤치고 나가야 할 오늘의 조

선 청년은 그 집이 무겁다. 그중에도 배움의 길에 있는 청년 학도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크다. 첫째로는 배우고 닦은바 힘과 지혜로써 새 일의 건설에 바칠 것이요, 둘째로는 배우지 못하여 울고 있는 수많은 겨레들을 이끌고 나가야 한

夏期學生啓蒙運動號

다는 당신네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라.

이미 각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동아일보의 학생계몽대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반과, 주일학교 연합회의 하기와동성정학교에 동원된 용사들이 육척천명이 넘는다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제군의 이 특한 충정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찌는듯한 더위를 무릅쓰고 목 적을 위하여 이 땅의 방방곡곡에 흠어져 가는 젊은 용사여! 힘 있게 싸워라. 내 몸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에 그들을 벗삼고 친근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생활의 밑바닥까지 맛보라.

일년에 한번씩의 귀중한 휴가이니, 오래동안의 규를 있는 생활에서 해방되어, 복잡하고 시를 등지고 그리운 고장에 돌아아가 피로한 심신을 쉬게 한다는 것도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마는, 제군의 주위에는 「나도 모르는 일천 삼백만의 눈먼 장애인들이 군들이 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배우고 싶은 마음

간절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그들의 눈물겨운 사정을 알아보라. 얼마나 딱한 문제인가?

한사람이 단 한사람 단 두 사람이라도 가르치라. 천사람이면 이천 삼천, 만사람이면 최소한도라도 오륙만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줄 수 있을 것이요, 몇해를 가지 않아 이 땅에도 글 모르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결코 적은 수자가 아니요 적은 일이 아니다. 예사 로이 생각하지 말지며 우리의 문화운동은 제군이 가지고 가

는 「나」 책에서부터 새 출발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강산 삼천리의 방방곡곡에 당신들의 지나간 발자취를 남기어라.
(김병제)

학생계몽대 3년간 통계

종목	1회	2회	3회
계몽대원	433	2,744	1,506
가르친곳	142	592	35
금지된곳	11	69	67
중지한곳	10		17
배우남	4,832	4,721	3,541
사녀	3,472	2,662	998
합계	9,496	11,533	3,583

目次

- 계몽운동에 나선 학생 제군에게.....金炳濟 (1)
- 한글 통일과 보급에 대한 각계 여러분의 말씀..... (2)
- 한글 바루잡아 쓰기 익힘..... (4)
- 신문 기사 교정..... (5)
- 하기 학생 계몽운동 한글 교재 해설..... (6)
- 朝鮮語讀本 卷一 指導例.....沈宜麟 (12)
- 중등 조선말본 길잡이.....崔鉉培 (13)
- 한글 신문..... (14)
- 부질없는 수작..... (14)
- 물음과 대답..... (15)

한 글 의 통 일 과 보 금

가정과 사회교육에
이 신철자법을 쓰자

基督申報社長 全 弼 淳

제것을 제가 보존함은 의무중에도 가장 당
연한 의무인줄 아는바이다. 그럴중에도 우리
의 말이나 글을 우리가 보전하고 우리가 청
리하고 우리가 발달시키는것은 우리의 의무
중 가장 귀하고 중한 의무일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까지 이러한 의무에 대
하여 등한한 죄책자라고 할만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상에 대하여 또는 민족
에 대하여 이 장산에 대한 이 죄책을 속
할 도리를 찾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먼저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 교육할 때
에 또는 동상회화할 때에 주의의 주의를 더
해서 청리된 신철자법을 응용할것입니다. 그
리고 이미 불귀척 부청리된 철자에 관습된
대중에게는 강습하나 또는 언론기관의 주자
를 이 신철자법 통일안을 표준하게 할것이
요, 또는 대중소설 같은것으로 하면 퍼 좋
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말로 할
수 있는 범위로 출판물이 모두 다 청리된
신철자법 통일안으로 하는것이 가장 청정일
것입니다.

비판과 투쟁의 자유

우리는 이것을 좇자

新東亞 主幹 主 要 論

통일안이 발표된 이상 조신글을 쓰는 사람
은 누구나 다 그대로 좇는것이 가할줄로 압

니다. 후 조그마한 불만침이 있으면 거기 대
한 비판과 토의는 자유로 할망정 통일안을
그대로 외가면서 차차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지요.

물재로 보급 방법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글
쓰는 사람들이 친봉대가 되어 통일안대로 쓰
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조신서 나오는 간행
물은 그 무엇이든지 모두 통일안 철자법을
좇도록 할것이며, 귀회에서 특히 권조신적으
로 각 공사립 학교 조신어 교사를 총망라하
는 회를 조직하여서 먼저 교사들부터 통일
시켜 놓는것이 급무일가 하며, 또 한글 잡지
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글 바두잡아 의힘」
을 호마다 계속하여 읽는 사람에게 참고되
게 하는것이 좋을까 합니다.

「신동아」잡지에서서는 될수 있는대로는 통일
안을 좇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일 난관
이 집필자 케일의 철자법의 통일이 없이 각
인각양인데다가 인쇄소 직공들도 신철자법에
대하여 퍼 무식하나, 제대로 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통일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집의 북방정안
잡지 경영관의 하나

新家庭 主幹 李 殷 相

흔히 말하기를 잡지는 경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첫째는 원고가 없고, 둘째는 자원이 없
고, 셋째는 검열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우에 한가지들 더 가하여
원고글자 고치기에 공연한 시간과 노력을 허
비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 글자를 고친다는 말이 무엇이나 문젯
지마는, 실체에 있어서 만사람이 만가지로 외
놓은것을 한잡지에 실으면서 그대로 들수는
없기 때문이다. 말은 한가지로 하면서 글은 만
가지로 쓴다는것은 우수한 정도를 지나쳐 두
려운 사실이 아닐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신
가정」잡지를 창간호로부터 이 한글 통일안
에 의하여 임청하게 썼었다. 이 통일안은 한
글을 권문적으로 연구하는 대가들의 수십년
연구 결정인만큼 우리는 철대로 복종하는 태
도를 가진다.

이러한 아름다운 복종은 반듯이 조신 문화
의 발전에 큰힘을 가져오는 중대한 방법중
의 하나임을 믿는다.

민중과 투쟁의 권일이라
우리는 다 가치 공부하자

新興朝鮮社 主幹 李 仁

조신어학회에서 민족 문화의 큰 일을 하나
이루어 주신것은 매우 고맙고 반가운 일입
니다. 여러 권문화자들의 오래동안 힘써 만
드신 안이니, 문외인인 민고 좇아가야 될것
입니다. 이케는 나부터 그 통일안을 좇아 행
하고저 하며, 공부들 아니할수가 없어서 늘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 용하게 된것은 가
다급가다급 깨달을적마다 스스로 기쁨을 이
기지 못합니다.

이 통일안을 조신 민족 권체가 다 가치 행
하여야 되겠는데, 그 보급 방법은 모든 인쇄
물이 다 이 안에 좇아 봐이도록 하여야 될
것이요, 각 사회 단체의 활동으로 서울에나

각 계 여 리 분 의 말 슘

[재

시골에나 가다급가다급 한글 강습회를 열어서 주어다 가치 배우도록 하여야 될것입니다.

나는 이 한글 통일안을 실행하는 사람이라, 내가 관제하는 조선불산장려회의 기관지인 「신영조선」과 발명학회의 기관지인 「과학조선」에나 일반 통신에까지 다 그대로 쫓아 씁니다. 몰라서 잘못되는것이 많은것은 아직 수양의 부족한 나에게서는 어찌할수 없는사정입니다마는, 통일안을 쫓아 행하여야 되겠다는 태도만이 확실하게 행하여졌읍니다.

전문기관인 협조와 어학회의 활동이

別乾坤 主幹 李 定 鎬

오래인동안 심혈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조선어학회의 한글 통일안이 이미 세간에 발표된 이상 다소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는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정도의것이면서로 양보 라협하여 이를 질대 지지하는것이 혼란상태에 있는 현상에 있어 통일과 보급을 아울러 촉진시키는데 가장 옹고 빠른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급에 있어서는 때때로 멀리한 한글강습회나 브나로드운동이나 문자보급반 이외에 각언론기관이 일체로 발문협조하여 통일안을 쫓아야 할것은 불문이요, 어학회 자체로서 새로운 전조선 방방곡곡이 이를 전보급할 어떠한 구체적 기틀을 지어 소기(所企)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말아보는 「발전근」은 당분간 임시로

보는것이나 아직껏 신철자법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과 정성문제보다도 케일큰 원인이 인쇄소에 한글의 새철자의 정돈이 아직껏 미비되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원간에 이를 반듯이 단행할 심산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사에서 철자법을 쓰는 잡지로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통일안의 타생애

天道教月報社 主幹 朴 浣

우리의 문화를 향상 발진하게 하는데 있어 모든것을 한글로써 표현하는것이 가장 편리할뿐 아니라, 민족의식을 고조함에도 다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급변에 한글 통일안이 발표된것은 우리 문화선에 획시적 약진이 있습니다. 이 통일안을 표준으로 하여 한글이 장차 우리 민족에게 보급될것은 의심하지 아니하는 바이나, 하루라도 속히 보급되게 하는 한 방법으로 맞춤법을 공식을 만들어 카아드씩으로 하여 학습하기에 편리하게 하는것이 필요할가 합니다. 실체에 있어서는 통일대로 쓰고져 하나, 아직 잘 익지 않은 탓으로 일일이 통일안을 찾아보기가 시간상 불편한 때가 있으므로 그저 자기가 아는대로 쓰기때문에 띄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서나 사무실에서나 기차중에서나 의심나는대 가 있으면 곧 카아드를 끄어내어 보편 알게 되도록 되었으면 더 속히 보급이 되지 아니할가 합니다. 우리 월보사에서 한글 통일안을 사용하기는 하나, 아직 원고 집필자와 인쇄소 관계로 점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글의 통일안

農民週報社 主幹 金 炳 淳

말은 사람의 의사와 사상 감정을 기록하는것인바, 이제 조선글을 통일함은 조선말을 정리하고 조선말을 통일하고 조선 문화의 정도를 높이는것이 될것이요, 나아가서는 말이 그 민족을 대표하는것이니까 조선 민족의 생명을 건실하게 하는것이 될것이외다.

우리글을 통일함에 있어서 학술이 구구하나, 나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글은 표음문자인 동시에 사형문자와 같이 글자에 뜻이 있게 할수 있고, 또한 글인 이상 문법상으로 통일일이 되어야 할것이니, 너무 고전적인 역사에만 치중하지 말고 진보적인 과학적방법을 응용하면서, 자기 학습만을 고집하지 말고 타협으로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글을 보급시킴에 있어서는 각 신문사 잡지사에서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단체를 조직하되 학자의 연구기관은 따두 두고 조선글을 옹호 보급시키는 단체를 민중적으로 조직하는것이 필요하지 않읍니다.

우리 농민주보에서서는 아직 한글을 완전히 쓰지 못합니다. 통일안 그대로 쫓아보려고는 노력합니다 마는, 일반 집필자 관계로 편집상 곤란한 점도 있거니와, 우리 잡지는 농촌을 상대로 하는바, 농촌에서서는 우리글을 재래식으로 모두 배워 한글이 보급되지 못한 관계로 재래식과 한글식을 섞어 써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시키려 합니다. (원고 도착순)

한글 바루 쓰기 힘익



6818078

이 습 지 음

그런대로 쓰는 것과 잘못을 바루잡아 쓰기를 익히는 것이 우리글을 통일하는데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 난을 두는 것이다. 이것을 읽을 때에 그 결에 바루잡아 쓴 것을 깊이 주의하여 보기를 바란다.

늘 속으로 피하였소. (배울일) 샷샷한 대침은 써가지지 않는다.

주인 할미와 하인

어느 할미가 계집하인 몇몇을 데리고, 하인들이 매일 아침에 첫닭이 울면 일하러 나간 것을 귀찮아하여 언더케하면 아참잡을 자리오 하고, 숙은 숙덕 여러가지로 공롱한 뒤에 아 무리하여도 더커 닭이 잇기로 하여 일 즈거니 일하김이니, 더커만 죽이고 보 면 그만이겠지 하고, 가만히 닭을 죽 여 바렸소. 그러나 할미는 새를 모르 게 됨으로 채 첫닭이 울기도 전부 리 성가시럽게 불너 일하김으로 점 점 더 하난수 업시 되었다오.

공작과 학

더 할수 업시 된다.

어느 곳에서 공작이 학을 만나서 핑그를 돌면서, 그 어엿분 깃과 아 름다운 꼬리를 퍼고 바로 보기 좋 한 항공 새와 같이 학을 나려다보 았소. 그럼에 학도 속으로 요놈 하 면서 쉴며 나르기를, 과연 너의 깃 과 꼬리가 보기에 곱기만 하다가 는, 그러나 나는 구름 속까지 올라가 되, 너의 깃같은 공작새와는 다만 고 을뿐이지, 닭 모양으로 뒤뚱뒤뚱 우에 걸려 다녀 파해야 어린 아해 의 놀림거리 구경거리 되던 것이 고 작이로구나 하면서 실컨 육보엿습니 다.

승냥이와 양

승냥이와 양이 오래 전쟁을 하더 니, 하다 못하야 어니새 화친하야 지 버자난 의론이 낫소. 그래서 화친 담 판이 열려서 서로 불모를 밧구어 화 친의 보장을 삼자 하야, 승냥이의 발 룬으로 양은 그 부리난 개를 승냥 이에 의게 주고, 승냥이난 그 새끼를 양의게 주기로 결정하야 곳 실행하

였소. 그리하였더니, 양의 진중으로 볼 모처럼은 승냥이 새끼가 어이를 러진고로, 연방 애애 울고 보채니, 승냥이가 이를 타서 '이러케 내 기를 곱게 하야 을도록함은 화친 약을 그대가 애침이라' 하고, 금시에 음습하나, 양의 진중에 난 이 미 충 한 개가 업서진고로 움쪽 못하고 승 냥이의게 잡혀죽임을 당하였소.

술이와 여호

술이와 여호 술이가 그 새끼에게 무슨 먹을 것 을 줄양으로 사면을 들너본즉, 맛참 여호 새끼 한마리가 더편에서 벗출 쪼이고 잇소. 요것 친사실이라 하고 일른 차가적오더니, 즉시 어이 여호 가 나와서 케발터분에 그 자식은 아달나고 애걸하얏스나, 술이난 집이 높은 곳에 잇는즉, 비록 를 갇호려 을지라도 걱할것 업다 고 생각하야 여호난 무슨 소래를 하 거니 그 새끼를 차깃소.

자용을 결단하되, 웃디하였던디 그 의 두루막이를 먼저 벗기난 편이 익이 기로 하자 하고, 최초로 바람이 힘 자라난대로 깃것 휘기회기 부러는즉 치위가 별안간에 후후하여더서 행인 이 암착 놀라 불불 떨면서 늦게 입 었던 두루막이를 꼭꼭 졸나매엿소. 그 다음은 별희 차례인고로, 벗치 얼른 구름속으로서 얼골을 드러내어 웃고 씩 밝은 빛과 더운 기운은 사방에 퍼져노니, 가리웠던 구름은 금시에 헤 어지고 치운 기운은 차차 가시여어 디고 좋은 밧매, 행인도 도와 전 대기 도출만하게 됨에, 행인도 도와 하다가, 나중에는 더워더서 전델수 어시 되여 웃지할수 업시 두루막이를 버 서바리고, 그리하야도 못밧애 급히 그

참최당한 여호가 크게 그 무법함을 분히 터져 어찌 잊지하면 시원할고 여 러가지로 회한 뒤에 그 근쳐 사당 에 초사사람들이 쇠쳐논 회사람이 잇 는것을 임으로 무려다가 술이의 집 이 잇난 나무 절에 가서 아대셔 불 불며 살나바리리하니, 이 일에는 술이도 매우 놀나서 자기 권술이 말 꿈 다 죽기심으로 사죄할대로 사죄한 뒤에 여호 새끼를 내여주었소.

〔배흘밀〕 남을 해롭게 하면 커도 해 본다.

양의 가족을 쓴 승냥이

피 많은 승냥이 한놈이 양의 가족을 쓰고 양씨 속에 드러가 양을 죽이 먹더니, 필경 목자의게 들켜 목을 매여 것헤 잇난 나무에 매인바 되었소. 그때 맛참 다른 목자들이 와 서 이 모양을 보고 놀나서 그 목 자다려 말하기를 『여보게 이것은 양인가. 양은 왜 붓드려 다했나』 하 니 『아닐세, 요놈이 양이 아닐세 기 실 양의 가족을 쓴 승냥일세』 하고 그 말을 벗긴대, 모든 사람이 다 고

소하다 하였소. [배흘밀] 속임으로 었은 신용은 오 래가지 못한다.

여호와 사자

여호가 처음으로 길에서 사자를 맞 날 때 여호는 오즉 무섭기만하야 그다

신문 기사 교정

東亞日報

第四回 學生啓蒙運動

『一천 삼백만의 글 모르는이에게 글 을 주자』는 목적으로 나선 본사의 계몽운동은 작년까지 제三회에, 四천 六백 五십 三名 참가원으로, 七만 七 千 九百 九十 七명의 눈을 열었습 니다. 금년에는 전 조선 一백 四십여 중 등 건문교 당국의 열창잇는 후일밀 에 제四회 계몽운동을 하게 되었습 니다. 우리는 참가하시는 남녀학생 계 군, 각 학교 당국과 및 이의 응하 시는 동포의 힘씀으로 一천 三백만 의 글 모르는 동포에게 글과 셈을 드리코야 말것을 믿고 바랍니다.

리 밑에 었도 숨도 크게 쉬 지 못하나, 두번째는 불고립히 그 열 골을 치어다 보오. 그리하다가 세번째 가서는 겁이 다 없서져, 첫호로 가 서 『대감, 귀은 었더심닛가』 하고 장 친한듯 태연하게 말을 하오. [배흘밀] 닌은즉 었시턱인다.

朝鮮日報

第四回 文字普及班

『아는것이 힘!』 『배워야 산다!』 살려고 하는이는 위선 아라라. 빛나 는 명일의 조선을 두 여개에 질머 지고 근근자자 학창에서 학과와 차 호다 하기 방학을 당하야 귀향하는 학생에게 향하야 본사의 문사보 급반의 동원령이 한번 떠러지자, 과 연 불길과 가리 향응하고 이러나는 문사보급반의 의기로는 육일중천의 기세를 보이고도 오히려 고칠줄 모 르다. 그리하야 이 강산 삼천리는 북 으로 백두산으로부터 해도의 노 태 들리는 제주도까지 그들의 감격은 떨고 잇다. 본사에서는 이 민 족적 사업의 아페 희생적 봉사를 바

치기로 일대 결산은 하고서 교재 백만부를 인쇄하야 노코 오직 우리 문사보급반의 출장을 기대하고 잇 을 슬뿐이다. 이리하야 금년에 백만! 명 년에 이백만! 이리케 본사와 학생 대중의 참된 협력에 의하야 문사보급반의 봉화를 노피 들고 무지의 광야를 한구석 두구석 청복해간다 하 면, 태양이 웃음웃는 밝은 조선을 가 켜줄 날을 확신시킨다. 빛나는 조 천! 웃음이 흐르는 조선의 건철은 문사보급반원의 영광스러운 의무와 자량이다.

中央日報

自作自給의 宣傳講演

조선불상장려회에서는 현재 내외정 세로 보아서, 자작자급의 그 이상을 실케운동에 옮길 때라고 하야 동회 십이회 정기대회를 획시적적으로 하 야서, 회원 정리에 지회 확장, 조선불 산생산업자 표창등 여러가지 신계획 을 세우고, 이에 앞서서 각 명사를 초 청하야 오는 심오일 밤 팔시에 중 로 중앙고등학교 청년회관에서 아래 같은 푸로그람의 선전대강연회를 개 최한다고. (하략)

허호후

【어음】 차(茶) 차조(糯米) 기차(汽車) 마차(馬車) 처녀(處女) 부처(佛) 초(醋) 초가(草家) 추녀(檐) 고추(蕃椒) 차마(裳) 고치(繭) 마치(槌) 조카(姪) 코(鼻) 키(身長) 라구(唾壺) 터(基) 토시(套袖) 도토리(橡實) 투구(胄) 피(葱) 피리(蠅) 파초(芭蕉) 포도(葡萄) 우표(郵票) 차표(車票) 푸주(庖厨) 피리(簾蓐) 하루(一日) 허리(腰) 허수아비(木偶) 허파(肺) 혀(舌) 호도(胡桃) 호드기(草笛) 호미(鋤) 후추가루(椒末)

【어음】 키가 크다. 러가 너르다. 코고 자요. 차가 럽하오. 차표부터 사야 하오. 나하고 가치가 하오. 도토리 주으려가자. 추수하러 가오. 이야기 하나 하여 주시오. 서로 이리니 러려니 하며 다투지 마라. 닭소리—스(치웃) 크(키웃) 드(티을) 프(피을) 흥(히흥)

【어음】 키가 크다. 러가 너르다. 코고 자요. 차가 럽하오. 차표부터 사야 하오. 나하고 가치가 하오. 도토리 주으려가자. 추수하러 가오. 이야기 하나 하여 주시오. 서로 이리니 러려니 하며 다투지 마라. 닭소리—스(치웃) 크(키웃) 드(티을) 프(피을) 흥(히흥)

새글자

【어음】 까꺼 꼬꾸 까따떠 또뚜빠빠뿌 싸쳐 쓰쳐 짜쳐 쪼쪼

【어음】 까치가 우오. 여우 꼬리가 가오. 꺼꾸로 하지 마오. 아이가 꾸아리 부오. 토끼가 두마리오. 포도 따러 가오. 요사이 어더하오.

이후

【어음】 리가 나오. 기차가 빠르오. 뼈가 러리오. 나무 뿌리가 기오. 찰우지 마라. 여기 뽕보아라. 쓰야기가 쓰오. 모자 쓰고 가거라. 씨 뿌리오. 짜르나 기나. 그리 쪼르지 아니하다. 도끼로 쪼기어라. 쪼그럭쪼 드오. 기사가 쪼르오.

새글자

【어음】 개두마리가 차우오. 시계가 비시 초오. 토끼가 귀가 크오. 내게 보나다오. 대가 매우 기오. 뒤에 다시오. 오시오. 모두 다 피오. 아이가 노래 부르오. 모래도 오시오. 매미가 우오. 배가 떠나오. 배 두자 사오시오. 도모지 비지 아니 하오. 새가 지쳐귀오. 세수 대야 가져 오너라. 쇠마치로 두드리오. 쉬와리가 모여드오. 그애가 누구나. 애가 어디 가노. 예비하여 하오. 교의가 세개오. 네 재주대로 하여 보아라. 죄다 아느냐. 쥐가 드나드오. 채소가 나오. 채에 치오. 케어 오너라. 마차에 태어라. 퇴마루로 나가오. 폐가 되오. 해가 떠 오르오.

【어음】 리가 나오. 기차가 빠르오. 뼈가 러리오. 나무 뿌리가 기오. 찰우지 마라. 여기 뽕보아라. 쓰야기가 쓰오. 모자 쓰고 가거라. 씨 뿌리오. 짜르나 기나. 그리 쪼르지 아니하다. 도끼로 쪼기어라. 쪼그럭쪼 드오. 기사가 쪼르오.

새글자

【어음】 귀와 쇠와 위와 화 주오. 거기 와 두오. 고루 나뉘 주오. 거기 뒤라. 그거 뒤냐. 어디 봐서 하지 오. 쇠 소리가 나오. 와서 보시오. 애그 더워. 화초가 자라오.

새글자

【어음】 국떡 책 벽 돈 손 전 글 말 발 물 점 갖 못 웃 웃 음 음 감 당 방 울 을 신 갈 갈 담 념 삽 벗

【어음】 국(羹) 떡(餅) 책(冊) 벽(國)의(鳥名) 눈(目) 돈(錢) 건(建)의(반찬) 글(書) 말(言) 발(足) 물(水) 오리(水鴨) 감(柿) 밤(栗) 섬(島) 솜(棉) 옷(衣) 웃음(笑) 강(江) 땅(地) 방울(鈴) 등을 먹어. 신을 신어. 칼을 갈아. 담을 넘어. 삽을 잡아. 옷을 벗어.

문맹타파

【어음】 귀 있고도 못 들으면 귀머거리요 입 가지고도 말 못하면 벼어리라지 눈 뜨고도 못 보는 글의 소경은 소경에도 귀머거리도 벼어리라 들는 대신 보란 글을 보도 못하니 귀머거리 이 아니고 그 무엇이며 말하듯이 써낸 글을 쓰도 못하니 벼어리가 이 아니고 그 무엇이뇨

【어음】 귀 있고도 못 들으면 귀머거리요 입 가지고도 말 못하면 벼어리라지 눈 뜨고도 못 보는 글의 소경은 소경에도 귀머거리도 벼어리라 들는 대신 보란 글을 보도 못하니 귀머거리 이 아니고 그 무엇이며 말하듯이 써낸 글을 쓰도 못하니 벼어리가 이 아니고 그 무엇이뇨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것은 취미의 일변으로 글자를 기의함에 편리하게 함이니, 풍금이나 하모니카로 곡조를 맞추어 아이들도 부르게 할 것이 다. 곡조는 이상준 선생의 지은 中等風琴唱歌集 「勸學歌」 「소년은 이르고 학년성하니」에서 취하였다.

모말

【어음】 모말 같은 「모」를 그 밑에 대면 새말만 먹기 좋은 「감」자가 된다

【어음】 모말 같은 「모」를 그 밑에 대면 새말만 먹기 좋은 「감」자가 된다

【제七페이지에서 이만】

제十二과는 독법(讀法)을 가르키는 것이니, 여기에는 재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며, 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그 말의 뜻과 이야기의 재료를 아래에 적었으니, 먼저 교사된 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요, 아이들에게는 그 중으로 선택 뽑아서 이보다 훨씬 신더 쉽게 말문을 만들어 이야기하여 줄 것이다.

재담

더미고 신신고(더)帶(를) 더고 시(履)는 신고(신)를 더고 충추고 땀땀고(충)을 추고, 땀을 땀고(땀) 호랑이 꼬랑이(호랑이)의 꼬리(리) 개구리 대구리(개구리)의 머리(머리) 이것은 말이 재미있고 읽기가 쉬우므로 여기에 재료를 취한 것이다.

속담

단단한 땅의 물이 깊다. (땅 뜻) 굳센 사람에게는 재산(財産)이 커축되다(돈) 부두막의 소음도 짐어놓여야 자다. (아무리 쉬운 일이 라도 노력을 쓰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한다는 뜻) 범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려라.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구도에 달할지라도, 정신을 차려 살아날 방법은 만인이라는 뜻) 드문드문 걸어도 황새 걸음. (소인배는 재빠르게 하므로

일이 귀기지만은, 대신은 주는 족하도도 장원성이 있다는 뜻) 접시의 밤도 담을 탓. (배사의 주신하는 것이 지혜와 도량에 있다는 뜻) 굵히 먹는 밤이 목멘다. (욕심으로 속단적으로 하려는 자가 흔히 넘어지게 된다는 뜻)

한술 밤이 배부르다. (공력을 올리지 들이고 초력을 속히 구하지 말라는 뜻)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 (해되든 사물에는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는 뜻) 남 잡이 케 잡이. (남을 해 하렵다가 케게 도두 재앙이 돌아오게 된다는 뜻)

노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머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케 아니 오르고, 폐만 높다 하더라. (이것이 학문의 이치가 아무리 깊고 어렵다 치더라도 사람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니, 꾸준히 의하여 가면 필경에는 뛰어내는 날이 있을 것이요, 힘써 공부하지는 아니하고, 그 커 어렵사 못하겠다고만 하여서는 못쓰는 것이니, 학문의 또 뜻이든 마땅히 어렵고 침고를 헤아리지 말고, 다만 부단(不斷)의 노력으로 자꾸자꾸 향상(向上)하여 나아갈 뿐이니, 이러한 뒤에야 반듯이 아름다운 결과를 얻

을 것이라 하는 뜻이다. 이 노래는 옛적 율곡선생(栗谷先生)의 지은 것이나 이것이 우리 후생에게 얼마나 향상력(向上力)을 일으켜주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가. 이어서 율곡선생은 어더한 어른인가 아래에 간단히 소개하겠다. 율곡선생은 성은 이(李)요 이름은 이(珪)요, 율곡(栗谷)은 그 별호다. 중종대왕(中宗大王) 십 삼년(사백년전)에 강원도 강릉(江陵) 골에 탄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많아 일곱 살 적에 훌륭한 글을 지어 이름이 높았으며, 열 아홉 살 적에 금강산에 들어가 열 심으로 볼도를 뛰다가, 깨달음이 있어 그만두고 율학을 뒤아서 문장과 도덕이 크게 뛰어났다. 해주(海州) 골 식담(石潭)에 살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었으며, 벼슬하여 호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지내고, 나이 사십 구세되던 친조대왕(宣祖大王) 십 칠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야기

한석봉(韓石峰)은 이름은 호(漢)요 석봉(石峰)은 그 별호다. 중종대왕 三十八년(삼백구십년)에 개성(開城) 골에 서 탄생하였다. 큰 명필도 이름이 높았는데,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 마귀(麻貴)와 유구국(琉球國) 사신 양찬(梁燦) 등의 외사 그 필적을 받

아가서 석봉의 글씨가 세계에 널리 퍼지었다. 벼슬은 군수(郡守)를 지냈고, 나이 육십 삼세에 친조대왕 삼십팔년에 세상을 떠났다.

지리

십삼도중에 십사부(府)이 백십 팔군(郡) 이도(島) 사십 구읍(邑) 이천 사백 삼십 오면(面)이 있습니다. (부는 경성부, 인천부, 개성부, 군산부, 목포부, 대구부, 부산부, 마산부, 평양부, 진남포부, 신의주부, 원산부, 함흥부, 청진부다. 도요, 부가 한군대도 없는 도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황해도다. 도(島)는 제주도, 울릉도다) 압록강(鴨綠江)은 근원을 백두산에서 발하여 서으로 용암포까지 이르러 황해로 들어가니 길이가 칠백 구십키로미쯤으로 조선에서 제일 긴 강이다. 한강(漢江)은 근원을 금강산과 대관령 두군대서 발하여 남부 두 갈래로 흘러 경기도에 들어가 합하여 하나이 되고, 다시 흘러서 동진에 이르러 황해로 들어가니 길이가 오백 십 오기로미쯤이다. 남동강(洛東江)은 태백산(太白山)에서 근원을 발하여 남으로 흘러 김해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길이가 오백 이십 오기로미쯤이다. 대동강(大同江)은 근원을 남림산(狼林山)에서 발하여 서으로 용강까지 이르러 황해로 들어가니 길이가 사백 삼십

십 구기로미쯤이다. 두만강은 (豆滿江)은 근원을 백두산에서 발하여 동으로 흘러 경흥에 이르러 일본해로 들어가니 길이가 오백 이십키로미쯤이다. 백두산(白頭山)은 함경남북도 와 만주의 사이에 있으니 높이가 이천 칠백 사십 사 미터로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지금으로부터 사천 삼 백여년전에 한배 단군께서 여기서 나와서 이 강산을 이룩하시었다. 금강산(金剛山)은 강원도에 있으니, 높이가 일천 육백 삼십 미터이며, 경개가 절승하여 참으로 세계의 명산이다. 지리산(智異山)은 경상남도 에 있으니, 높이가 일천 구백 십 오 미터이다. 모향산(妙香山)은 평안북도 영변(寧邊)에 있으니 높이가 일천 팔백 구십 사 미터이며, 여기에도 단군의 고적이 있다. 구월산(九月山)은 황해도에 있으니, 높이가 구 백 오십 사 미터이며 단군께서 돌아가신 곳으로 이름이 있다. 한나산(漢拏山)은 제주도에 있으니, 높이가 일천 구 백 오십 미터이니, 백두산 다음에 높은 산이다.

역사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이름은 주몽(朱蒙)이니, 본래 북부여(北扶餘)나라에 나서, 그 어머니 유화(柳花)와 함께 동부여(東扶餘)나라로 와서, 그 나라의 임금 금와왕(金蛙王)의 양자로 있었다. (북부여

와 동부라는 다 지방 만주 땅) 주몽이 잘나고 재주가 있어 나의 임금살에 손수 할과 화살을 맨들어 쏘아 백백발중하였다. 음와왕은 아들 임금의 있으나, 다 재주가 주몽만 못하여, 그 칠형제는 주몽을 시기하며 한껏 미워하였다. 그 큰아들 대소(帶素)가 왕께 아뢰어 주몽을 죽여달라고까지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아니하고, 주몽을 외양간에 보내어 말머리는 천의를 시켰다. 주몽은 여러 말 가운데 날랜놈을 골라 굶기고 노운한놈은 잘 먹였더니, 뒤에 왕이 살진 말은 자기의 소용으로 하고, 파리한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한번은 사냥하려 갔을 때에 주몽의 여러 왕자보다 앞서고 짐승 잡은 것이 제일 많으므로, 왕자들과 신하들이 서로 의논하고 주몽을 죽이려하였다. 그 어머니 유화가 가만히 알고 주몽에게 말하기를 『이나라 사람들의 너를 죽이려고 피하고 있다. 너의 재주로써 어디로 가든지 안될 것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지체하고 있어 욕을 받기보다 한번 멀리 가서 큰일을 경영하는이만 못하리라』 하였다. 주몽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곧 떠났기로 작정하고, 그 친선한 벗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부(陝父) 등 세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길러둔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났다. 가다가 임사수(淹流水)란 강가에 다다라 건널수 없고 뒤에는 잡

으러 오는 군사가 따라오는 지라. 주몽이 하느님께 빌매 물에 다리가 놓여지므로 건느게 되고, 잠으려는 군사는 건느지 못하였다. 가다가 또 어진 사람 셋을 만나, 가처 졸본천(卒本川)이란 땅에 이르러 살았으며, 그 부근 여러 작은 나라를 쳐 항복받아 고구려(高句麗)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다. 이가 곧 동명성왕이다. 때는 임천구백칠십 여년전이다. 고구려 나라의 동방의 가장 큰 나라로 지방 평안남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및 만주 전부를 차지하였으며 조천 역사상에 가장 빛난 때였다. 온조왕(溫祚王)은 동명성왕의 아들로 고구려 나라에 있더니, 동명성왕의 동부여나라에 있었을 때에 남이와 들 유리(類利)가 돌아와 태자가 되매, 온조는 거기서 부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형 비류(沸流)와 함께 남으로 내려가, 부여악(負兒嶽) 지방 삼각산(三角山)에 올라 바라보고, 거할만한 곳을 골라, 형 비류는 미추홀(彌鄒忽) 지방 仁川)로, 온조는 의례성(慰禮城) 지방 廣州)로 각기 나누어 살다가, 비류가 죽으며, 온조가 그 백성을 통치하여 백제(百濟) 나라를 세웠다. 이 것이 고구려 건국한지 십구년 뒤였다.

을의 초장이 백성을 거느릴 뿐이려니, 소벌공(蘇伐公)이 멀리 바라보고, 나침(羅井) 결수풀 사이에 흰 말이 풀어앉아 우는 지라. 달려가서 보니 말은 없고 큰 말이 있으므로, 쫓개어 보니 어린애가 나왔다. 거두어 길렀더니 자라매 매우 훌륭하므로 나라의 백성들이 추대하여 임금을 삼았다. 박제상(朴堤上)은 임천 오백여년전 신라 눌지왕(訥祗王) 때의 사람이다. 임금이 이우 미사흔(未斯欣)의 일본의 가서 오래동안 돌아오지 못함을 근심하며, 박제상이 차원하고 건너가서 지모로써 미사흔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잡혀가서 엄청난 벌을 받으며, 조감도 풀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일천삼백 삼십여년전 고구려 영양왕(嬰陽王) 때 대신이다. 수나라(隋) 군사 백만명이 서로와 육로 두길로 나누어 쳐러오매, 을지문덕이 많지 아니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어 살수(薩水) 지방 淸川江)에서 크게 싸우며 그 많은 적병이 다 죽고 살아 돌아간자 겨우 이천 칠백인만 되었다. 대조영(大祚榮)은 고구려의 유신(遺臣) 訖論(訖論)의 아들이다. 신라가 당나라(唐)와 연합하여 먼저 백제를 쳐서 멸하고, 이어서 고구려를 멸하였다. 백제의 땅은 신라가 차지하게 되

고, 고구려의 메천 땅은 당나라가 차지하였다. 訖論(訖論)은 백두산 밑에서 일어나, 조국 고구려를 회복하려고 독림군을 일으켜 가진애를 쓰다가 병으로 죽고, 그 아들 대조영이 아버의 뜻을 이어 고친악투하여 당나라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말해(渤海) 나라를 세우니, 고구려가 망한 후 삼십년만에 그 땅이 다시 우리 민족의 손으로 돌아왔다. 왕건(王建)은 송도 사람이 다. 구백여년전 신라 말년에 세상이 요란하며 후고구려(後高句麗)와 후백제(後百濟)란 나라가 일어나 다시 삼국시대가 되었다. 왕건은 후고구려의 장수로써 후고구려의 임금이 되었으며, 신라와 후백제를 멸하고 반도를 통일하여 고려(高麗) 나라를 세웠다. 최영(崔瑗)은 오백 삼십여년전 고려 우왕(禎王) 때 사람이다. 나의 어릴적에 그 아버지의 말을 들 보듯하라 『교훈하는 말씀을 평생에 지키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라를 위하여 일신을 바치었다. 나의 칠십이 넘도록 정승과 장수로써 일국에 제일가는 지위에 있었으며, 집안은 항상 빈한하여 끼니를 굶는 때도 종종 있었다. 일생에 수백번 차용하여 한번도 패해본 일이 없었다. 마지막에는 명나라(明國)를 쳐서 우리의 메천 땅 만주를 빼앗아 고려의 장도로 집어넣으려는 큰 계획으로 활동

하다가 이태조(李太祖)에게 잡혀죽었다. 정몽주(鄭夢周)는 지금으로 부터 오백여년전 고려(高麗) 말년 때의 사람이니, 학문과 도덕이 높으며, 국가에 충성을 다하여 고려를 끝까지 받들다가 공양왕(恭讓王) 사년에 조선대종대왕에게 암살되었다. 그 죽은곳 천축교(善竹橋)에는 지금까지 피흔 적이 있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은 조선 제4세의 임금이시니, 총명하고 부지런하사 밤낮없이 손에 책을 놓지 아니하시었다. 시적을 지술한 것이며, 천문기계를 발명한 것이며, 음악의 제작한 것이며, 그 밖에 여러가지 백성에게 유익한 사업을 하신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 여러가지 성덕중에 더욱 만민의 큰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은 한글을 만드신 것이다. 한글을 만드신 것이 다. 한글을 만드심에 대하여는 이 다음에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겠기에 여기에는 더 말하지 아니하거니와, 만일 한글이 없었더라면 그 원수의 한문으로 하여 우리가 얼마나 고통으로 지냈었인가. 생각하면 실로 소름이 끼칠 일이다. 이순신(李舜臣)은 삼백 오십년전 신조대왕(宣祖大王) 때 사람이다. 임진란 때에 대해전(大海戰)으로 공이 많았다. 그 창제한 거북선은 오늘날 철갑선(鐵甲船)의 원조로, 그 때에 이러한 것을 발명한 것은 과연 놀래지 아니할 수 없다.

조선일문보문자보급반

【한글원문 교안】

이 교재는 약 비주일동안 가르치게 된 것이며, 가르치는 법에 대하여는 대본(臺本) 첫머리에 대개 적은 것이 있으나, 드로 거기에 의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교수를 진행할 때에 이 아래에 쓴 것을 주안(主眼)을 삼기를 바란다.

- 케 일 일 「가」자 줄
케 두 일 「가」자 줄
케 세 일 「나」자 줄
케 네 일 「다」자 줄
케 다섯 일 「마」자 줄
케 여섯 일 「바」자 줄
케 일곱 일 「사」자 줄
케 여덟 일 「아」자 줄
케 아홉 일 「자」자 줄
케 열 일 「차, 카, 타, 파, 하」자 줄
케 열한 일 병서법(並書法) - 된소리
케 열두 일 거듭홀소리 (複母音)
케 열셋 일 바침법(「바침」)
케 열넷 일 동 (「」바침)
케 열다섯 일 동 (「」바침)
케 열여섯 일 동 (「」바침)
케 열일곱 일 동 (「」바침)
케 열여덟 일 동 (「」바침)
케 열아홉 일 동 (「」바침)
케 스물일 일 동 (「」바침)
케 스물두 일 동 (「」바침)
교수법의 대하여는 우의 「한글공부」 교안에 자세히 말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여기에는 설명을 약하고, 다만 아래 단어(單語) 해설만 하

기로 한다.

- 【一】 가마(轎) 가래(鰲) 가위(鉞) 가시(荊) 가마니(吹) 거(糠) 고기(魚) 고치(繭) 고무(甘藷) 고초(苦草) 고사리(薇) 고비(蕨)
【二】 구두(靴) 구루마(車) 구데기(蛆) 거미(蜘蛛) 거루(小艇) 거머리(蛭) 거위(鵝) 그네(鞦韆) 그림자(影) 기러기(雁) 개(犬) 개고리(蛙) 개미(蟻) 개나리(木名) 괴수(魁首) 귀(耳) 귀리(燕麥)
【三】 나비(蝶) 나무(木) 나루(津) 나귀(驢) 너구리(貉) 노루(獐) 노래(歌) 노새(驢) 누에(蚕) 누이(姊) 뇌수(腦)
【四】 다리(脚, 橋) 다시마(海帶) 다리미(熨) 대(木名) 도라지(桔梗) 도마(俎名) 도가니(埧橋) 도야지(豚) 도미(鯛) 도끼(斧) 도토리(橡實) 도꼬마리(蒼耳子) 두더지(田鼠) 두두미(野鶴) 두두마기(周衣) 대야(盥器) 대패(鉋) 대나무(竹) 되(升) 뒤주(米櫃)
【五】 마차(馬車) 마루(床) 머리(頭) 머루(山葡萄) 머주리(婦) 모래(沙) 모기(蚊) 모자(帽子) 모래무지(魷魚) 무(菁根) 무자위(唧筒) 무지개(虹) 미나리(芹) 미꾸라지(鱸) 매(磨) 매미(蟬) 매주(煙造)
【六】 바지(袴) 바다(海) 바구니(籃) 바위(岩) 버드나무(柳) 벼(稻) 벼루(硯) 벼개(枕) 보리(麥) 보시기(小皿) 보채기(椽) 부개(俵) 비(雨) 비누(石鹼) 비녀(簪) 배(舟) 배추(白菜) 배나무(梨木)

【七】 사모(紗帽) 사기(沙器) 사다리(梯) 쇠리(霜) 소(牛) 소라(螺) 소매(袖) 소리(聲) 소나무(松) 수리(鷺) 수수(黍) 수레(車) 수세미(豆 수세미) 시계(時計) 시루(甑) 시아버지(壻父) 시어머니(壻母) 시누이(壻妹) 새(鳥) 새우(蝦) 쇠(鐵) 쉬(蠅卵) 쉬리(蠅)

- 【八】 아버지(父) 아우(弟) 아저씨(叔) 아주머니(叔母) 아가위(山查) 어머니(母) 여우(狐) 오리(鴨) 오락버니(男兒) 오디(桑椹) 오이(瓜) 요(褥) 우뢰(雷) 유리(琉璃) 이마(額) 이리(狼) 외나무다리(獨木橋) 왜가리(鳥名)
【九】 자(尺) 자라(鱉) 자루(柄) 쥐고리(上衣) 주머니(囊) 조(粟) 조리(箆籬) 조끼(石首魚) 조개(蛤) 지게(支機) 지네(蜈蚣) 재(灰) 쉼(燕) 쉼기(遊戯具) 쥐(鼠) 쥐며누리(鼠婦)
【一〇】 초(燭)醋(醋) 치마(裙) 코(鼻) 코끼리(象) 키(箕) 띠(睡壺) 토시(套袖) 토끼(兔) 투구(冑) 파(葱) 파리(蠅) 피(血) 피리(笛) 하라버지(祖父) 허리(腰) 혀(舌) 호미(鋤) 호도(胡桃) 패(牌) 해(太陽) 화로(火爐) 회(彈)
【一一】 까마귀(烏) 까토리(雌鳩) 꼬리(尾) 개(荏) 따오기(鶻) 삤꾸기(布穀鳥) 뼈(骨) 찌개(羹) 차리(萩) 쑥(藷) 가리(鱖魚) 쓰드리미(虫名) 씨(核)
【一二】 면소(面所) 학교(學校)

【一三】 복(數) 독(甕) 바(瓠) 삭(艾) 모(頸) 죽(粥) 죽(痛) 책(冊) 다락(樓) 주먹(拳) 주걱(飯匙) 부엌(廚) 누룩(麴子) 수박(西瓜) 바다(底) 저녁(夕飯) 복사(桃) 국수(麵) 떡국(餅湯) 낚시(釣) 탁자(卓子) 작두(削刀)

- 【一四】 손(手) 손님(眼, 雪) 돈(錢) 문(門) 눈(番) 산(山) 분(粉) 쇠(五十) 소반(盤) 사진(寫眞) 대문(大門) 우산(雨傘) 마흔(四十) 예순(六十) 버선(襪) 인두(燒邊) 선반(柵) 반자(秤) 인두(燒邊) 준치(鱒) 진지(飯) 만두(饅頭) 우편소(郵便所) 신문(新聞)
【一五】 달(月) 말(言) 불(水) 불(火) 실(糸) 칼(刀) 돌(石) 팔(腕) 살(肉) 발(足) 쌀(米) 할(弓) 겨울(冬) 커(衡) 여름(菟) 시골(鄉村) 서울(京城) 비탈(崖) 거울(鏡) 가을(秋) 울부(菖蕪) 골부(指匣) 열무(小菁) 살구(杏) 불레(紡車) 걸레(雜巾) 철구(白) (以下略)

하기아동성경학교

【초등반 교과서 교안】

이 교재는 약 한달동안 가르치게 되었으니, 가르치는 법은 주안으로 마음껏 하고, 다음을 먼저 의하게 하고, 다음으로 예수교에 관한 지식을 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글자를 다 배우는 것은 다만 열흘 동안으로 배정되었다. 매일 교수를 진행할 것은 아래와 같다.

- 케 일 일 홀소리(中聲)
케 두 일 당소리(初聲)
케 세 일 「가, 나, 다」자 줄
케 네 일 「라, 마, 바」자 줄
케 다섯 일 「사, 아, 자」자 줄
케 여섯 일 「차, 카, 타」자 줄
케 일곱 일 「파, 하」자 줄
케 여덟 일 거듭홀소리(複母音)
케 아홉 일 바침법
케 열 일 된소리
케 열한 일 된소리
케 열두 일 바침법
이 교재에 대하여 가르치는 방법은 우의 「한글공부」, 「한글원문」의 설명이 있으며,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리라 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마춤법(字法)가 트칠 때에 그치 읽기만 하여 입에만 의하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눈에 의해서 한 자씩 다루도록 할 것이다. 「보기」에 있는 말도 많이 연습시켜야 할 것이다. 강독법의 이르러는 성경에 있는 뜻으로 동화도 하고, 찬송가도 불러서 아이들로 하여금 취미를 흥기하게 할 것이다.

普通學校...◇

朝鮮語讀本卷一

◇...指導例

(四) 沈宜麟

一、教材 「二十、소가 잇소. 어미 소와 송아지가 잇소. 말이 잇소. 어미말과 망아지가 잇소.」

二、教材觀 家畜의 代表的인 兒童 經驗의 가장 많은 是 「소와 말」에 對하여 形態와 効用이며 어미삯기의 關係를 알리고, 또 家畜에 對한 愛護心을 기를것이다.

소와 말은 家畜中에 가장 有用한 動物이다. 第一課 「소」에 셔도 배웠것지마는, 소라는것은 特別 朝鮮 農家에 업지 못할 所重한 動物인것을 알아야 한다. 生産額으로 보더라도 重要な 地位를 占領하였고, 그 効用의 많은것도 이 以上되는 家畜이 업슬것이다. 또 말로 말하야도 아주 生産은 만치 못하나 亦是 소와 같이 要緊한 動物이다. 兒童이 날로 目擊할뿐더러, 우리들 生活에 關係가 깊은 이 소와 말에 對하여 明確한 觀念을 주고, 따라서 家畜에 對한 愛護心을 기르며, 動物의 어미삯기間의 愛情關係도 잘 알려야 할것이다.

形式的 方面으로는 單文의 主語가

돌되는 境遇, 語法으로 助詞「가, 이, 와, 과」의 쓰는法, 綴字로 重中聲「나」終聲「오, 르」이 잇는字의 觀念을 줄것이다.

1、文體...四個의 單文으로 된 普通敍語體(하오)의 普通文이다. 單文의 主語가 複數되는 境遇는 처음이다.

主語 主語 述語

소와 송아지가 잇소
말과 망아지가 잇소

2、文의 內容...어미소가 삯기송아지를 다리고, 어미말이 삯기망아지를 다리고, 들에 나와서 노는 모양을 보고 쓴 글이다.

3、소와 말의 比較...소는 머리우에 뿔이 잇고 목이 짧은데, 말은 뿔이 업고 목이 길며 갈기가 낫다 소의 꼬리는 끝에 열이 낫는데 말은 엉덩 열로 되었다. 또 쇠굽은 두족으로 생겨스나, 말은 후으로 되었다. 소든지 말이든지 짐을 실리기도하고 수레를 끌리기도하나, 소는 농사질 때에 만이 쓰고, 말은 사람이라는 소용에 만이 쓴다. 그러니까 소와 말은 다 사람한테 업지 못할 아주 소중한 짐생이다.

4、插畫...소와 말의 풀밭에 나와서 놀고 있다. 어미소는 송아지를 다리고, 어미말은 망아지를 다리고 나왔다. 송아지와 망아지는 어미가 단기는대로 꽃아단기며 젖을 먹기도하고 풀을 뜯어 먹기도하며 즐거

워한다. 어미는 삯기가 귀여워서 다리고만 단진다.

5、新語...어미, 어미소 송아지, 말 어미말, 망아지, 오아지, 와, 과, 이

6、補充語...어미, 암소, 수소, 최소 상사마, 수말, 암말, 백마, 뿔, 갈기 꼬리, 굽, 기른다, 팔, 족, 여들, 외양 간, 마부안, 농사, 짐실른다, 탄다, 젖먹는다, 사랑한다, 말는다, 붓꽃는 다, 엄매, 흥흥.

7、新出字...와, 송, 말, 과, 망 와(○十十十十○十十), 과(十十十) 송(송자에 이용 바침한자), 망(망자 에 이용 바침한자), 말(말자에 리을 바침한자)

8、語法...「와 과」는 體言 밑에 오 는 助詞로 써가지 쓰는 境遇가 있다 이것은 그것과 달오오...比較 어케 형남과 공부를 하얏소... 共同

말과 소가 잇소...體言 陳列 本文의 과는 即 尙재 境遇다. 우에 오는 語尾가 中聲인 때는 「와」 를 쓰고, 終聲인 때는 「과」를 쓴다.

三、指導方法大要 (三時間 取扱)

1、本文을 自己 힘으로 읽어보고, 大意를 發表케 할것.

이 글을 잘 읽어보고, 무슨 말을 썼는지 말하야 보이라.

答「어미소 송아지 어미말 망아지 가 잇다는 말을 썼습니다.」其他 여러가지 對答이 잇슬것이다.

2、插畫에 對하여 觀察을 시킨 後 自

由로 發表케 할것.

3、問答으로 소와 말의 形態와 効用 을 比較하여 發表케 할것.

4、平常의 經驗을 가지고 소와 말의 어미와 삯기 사이에 나타나는 愛情 關係를 發表케 할것.

問「어미소는 송아지를 엇더케 하든 ? 송아지는 어미소를 보고 엇더 케 하든? 등...」

5、以上과 같은 取扱을 할 때에 新 語며 補充語를 指導할것.

6、新出字에 對한 指導(쓰는法, 發 音法, 마침法, 特別 終聲法에 注意)

7、新語를 板書하여 文字와 單語의 觀念을 連結시킬것.

8、全文을 읽는 練習... (指名讀, 範讀, 模讀, 齊讀)

9、全文의 書取 練習... (視寫, 聽寫, 暗寫等. 分別書法에 注意)

10、語法의 適用練習. 助詞「가와이, 와와과」의 쓰는 境遇.

11、應用書取 練習.

「개가 잇소. 어미개와 강아지가 잇소. 옷이 잇소. 키고리와 바 지가 잇소. 신이 잇소. 집신과 구 두가 잇소. 말과 소가 잇소. 송아지 와 망아지가 잇소.」

이 난에 쓰는 글은 보통학교 교과서에 쓰는 철자법대로 하 는것이므로,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중 등 본말선조

이 집 길
培 鉉 崔

말본갈 (語法學)

(모도플의의 이론)

六、 어느 나라의 말에든지 제가
끔 일정한 본(法)이 있나니, 그 본
을 말본(語法)이라 하며, 그 말본
을 닮는 학문을 말본갈(語法學),
더러는 줄이어서 말본(語法)이라
하나니라.

말의 다름을 따라 본(법)이 또한
다르나니, 잉글리쉬에는 잉글리쉬의 본
이 있고, 한어에는 한어의 법이 있고,
조선말에는 조선말의 본이 있다. 여기
이 책은 조선말의 본을 닮는 책이다.
그러한즉 남의 나라 말본을 닮아서
우리말본의 규칙에 참고로 삼으면 괜
찮을뿐 아니라, 차라리 해야만 할 것
이지마는, 정없이 남의 말본에만 따
르니 그 말의 특유한 성질과 법칙
을 살피지 아니함은 아주 큰 잘못
이라 아니할수 없나니라.

조선말에도 또 여러 시골말(方言)
을 따라 여러가지의 본(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이 책에서 닮

아 가는것은 대중말의 본이다. 그러
므로 이는 곧 조선말 그것의 고유
의 일정한 본을 닮는것이라 할지니
라.

그러면 조선말의 일정한 본이란 대
체 무엇인가? 조선말의 낱말의 낱
말도 이미 세계 사람에게 공통하는
생각을 특히 조선식으로 표현한것이
지마는, 그 낱말만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잘 나타낼수 없는 등
시에 또 말본이라는것도 없을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
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여러 낱말
을 서로 엮어붙여서 쓰나니, 이에 비
로소 말본이 생기는것이다. 그러므로
말본은 낱말을 부리어서 월(文)을 만
드는대에서 생기는것이다. 그러나 그
본(법)은 어떤 특정한 일개의 낱말
에 친숙한것은 아니요, 그 종류를 따
라 공통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
야 어떤 갈래의 낱말은 다른 어떤 갈
래의 낱말과는 도모지 서로 잇지 아
니한다든지, 또 어떤 갈래의 낱말은
어떤 다른 갈래의 낱말과 잘 잇는
다든지, 또 그 서로 이음에는 일정한
한 차례가 있어서 어떤것은 우에 가
고 어떤것은 알에 간다든지, 또 그 서
로 이음에는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요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공통적법칙
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곧 말본갈래
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말본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른 말의 본(法)
則)이란것은 커 언어나 어디거나 회

두두 통하야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
연계의 법칙과는 다르다. 원래 말이
란것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발생변천
하는것이라. 따라 그 법칙도 또한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성질을 가진것
이다. 한 민족의 말이라도 첫째 시
대를 따라 다르며, 동시대에서도 접
慣을 따라 다를수 있다. 그러므로 아
무리 작정한 대중말(標準語)의 본이
라도 결코 커 자연과학적 법칙과 같
은 정도의 필연성을 멸수는 없다.
그리하여 원칙의 폐의를 인정하게 되
며, 또 그 폐위가 드디어 원칙이 됨
을 인정하지 아니할수없는 경우도 있
음을免증지 못한다.

말은 사람의 사상을 나타내는것
이요, 말본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사상에 의하야 운용되는것이로되 생
각의 곧 말이 아님과 같이, 생각의
본(法)의 곧 말의 본이 아니다. 생
각은 온 누리 사람이 한가지라 할
수 있겠지마는 말은 한가지가 아니
며, 생각의 본은 한가지로되 말의 본
은 한가지가 아니다. 「삼각형의 내각
의 화가 삼각각이다」가 생각으로서
는 틀렸으며 말로서는 바르니 이는
생각의 곧 말이 아님을 보임이요,
논리자는 세계공통적이로되 어법학은
각국어에 따라 특수적이니 이는 생
각의 본이 곧 말의 본 아님을 보임
이다. 이리하야 말본갈이 커 논리학
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하고 대립
하야 독립적 학문을 이루는것이다.

그러나 두가지가 서로 돕는 관계가
있음은 또한 자연이라 하겠다. 생각
으로 말미암아 말이 발달되는 동시에
거꾸로 말로 말미암아 생각이 또한
발달하며 논리학으로 말미암아 말본갈
이 이익을 받는 반면에 말본갈의 연
구가 또한 논리학에 이익을 끼치는
일도 있나니라.

말본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순연히
생각으로 만들어 낸것이 아니요, 재
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말의
사실에 기인하여서 귀납적(歸納的)으
로 그 본(法)을 찾아낸것이다. 그러
므로 말본갈의 본은 기술적(記述的)
설명적(說明的)임이 그 본색이라 하
겠다. 그러나 한번 발견되어서 일반
이 인정한 말본갈의 본은, 다음에는
그 말을 쓰는 사람, 배우는 사람에게
대하야, 규범적(規範的)이 되는것이다.
물론 말의 가변성(可變性)에 의하
야 그 본의 규범성(規範性)도 또한
가변적이다. 그러나 앞의는 말한바와
같이 대중말(標準語)의 개성의 의식
적(意識的)임과 같이 그 말본의 개성도
또한 의식적이다. 그리하야 그 규범
성(規範性)은 시간적(時間的)이나 마역
시 고정적(固定性)을 지니게 되어 조석
또는 개인적 변개를 허용지 아니한다.
七、 말본갈(語法學)은 그 뒤음
(研究)의 주관적의 다름을 따라,
세 조각(部分)으로 나누나니, 소리
를 닮는(研究하는) 조각을 소리갈
(音聲學)이라 하며, 써(낱말)를 닮

는 조각을 씨갈(語論)이라 하며 월(文)을 닦는 조각을 월갈(文章論)이라 하나니라.

소리갈(音聲學)은 말의 전달가능성(傳達可能性)의 기초적 수단으로 쓰는 소리를 닦는 것이니, 말본갈(語法學)——아니 일반으로 말갈(語學)의 가장 기초적 조각(部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갈(音聲學)은 원래 말본갈과 대립하여 말갈(語學)의 한 갈래를 이루는 독립의 학문이다. 말본갈은 말의 내용적 방면에 관한 학문임에 대하여, 소리갈은 말의 외형적 방면에 관한 학문이다. 여기에 이 소리로 말본갈의 한 조각을 삼은 것은 이론적으로는 좀 덜 맞지마는 실제적(實際的)으로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물론 여기에 넣은 소리갈은 우리 말의 본을 연구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외서 우리말의 소리를 논함이고 결코 소리갈 일반을 논함은 아니다. 소리에 관한 기초적 지식이 전연 없이는 도저히 우리의 말본을 닦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소리갈로 말본갈의 임무를 삼았노라.

씨갈(語論)은 생각의 낱말의 조각 조각을 나타낸 낱말을 월의 구성재료(構成材料)로 보아서 닦는 것이니, 그 성질을 따라 종류를 잘라서 그 형식을 연구하며 각 종류의 월 구성상의 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니, 말본갈의 중견부분이 되는 것이요, 연구의 대부분

은 이에 허비된다. 그러나 낱말이 말 곧 낱말이 아니요, 말본은 낱말을 부러서 월을 이루는데에 성립하는 것인 즉, 낱말을 닦는 씨갈은 다만 월갈의 차림(準備)이 될 따름이요, 그 자체가 곧 말본갈은 아니다. 말본은 사실히 월갈(文章論)에서 그 구실(任務)을 다 이루는 것이다. 곧 월갈(文章論)은 씨갈에서 연구한 낱말이 어떻게 서로 얽히어서 완전한 사상을 나타내게 되는가? 그 운용관계를 대체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도 그 요소를 분류하여 그 성질과 그 작용을 연구함이 그 주안(主眼)이니라.

중등조선말본 正誤表

頁行字	誤	正
37 1 下	회방	해방
50 2 中	일이자꾸	일이 자꾸
51 4 中	집승	집승
84 5 下	엇을	엇을
86 11 下	음죽임이	음죽임을
97 8 下	집승	집승
112 上	이다의	이다의
112 // 中	이냐의	이냐의
112 // 下	이면의	이면의
133 5 上	의 부러는	의 부러는
160 9 끝	가십니까	가십니까
193 1 下	맞마마디	맞친마디

한글마춤법 통일안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半千年 以來 整理 못되었던 우리글을 朝鮮語學會의 손을 빌어 비로소 마춤법(綴字法)이 完成되었다. 全民族이 統一하게 쓸 표준글은 반듯이 이것에 말미암을 것이다.

訓民正音原本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四百 八十 八年前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을 頒布하시던 그 原本을 寫眞銅版으로 縮刷한 것이다. 우리글의 근본을 알 고쳐 하는이로는 아니 보편 안된다.

延禧專門學校教授 崔鉉培先生 著

중등조선말본

菊判二百頁
紙質堅厚
脊布美本

定價 八十錢・送料 六錢

- ◇標準朝鮮語文法인제出現
- ◇最良의朝鮮語文法教科書
- ◇朝鮮語研究의基礎知識書
- ◇著者數十年專心研究要領

朝鮮語學會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基準한 文法이다. 무릇 朝鮮語에 뜻 있는이는 누구든지 배우라 의이라.

◎注文은

朝鮮語學會出版部로

振替京城壹〇參六番

京城花洞一・二九番地

한글신문

조선어학회

임시 총회

조선어학회에서는 지난 六월 九일 하오 四시에 수표청 회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간사장 사회로 철자 사전을 하루 바빠 완성하기 위하여 의원 몇 명을 더 뽑기로 하고, 동아일보 사 주최의 하기 한글 강습회의 구원과 강사의 배정을 마치고,

동아일보사 주최의

제삼회 하기 한글 강습회

중역 도시

마흔곳 일제 개강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이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선어 교과서의 개정 철자법이 시행한지 오년이 되었으며, 그밖에 나날이 출판되는 사적이나 신철자법에 의지한 것으로 되어 한글 통일 소리가 점점 높아가는데 이때에 각 지방 인사들의 새철자법을 알고자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동아일보사에서 조선어학회의 후원을 얻어, 여름에 또 제삼회의 하기 한글 강습회를 열기로 방금 준비중인데, 이번에 강습할

신임회원 두분이 소개되다.

金炯基, 方鍾鉉

본회파송 연구원

김선기씨 출발

본회회원 김선기씨가 프랑스로 언어학 연구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차례로 알려졌거니와, 지난 六월 七일 밤 九시 四十分 차로 떠날새, 역두에는 조선어학회 회원을 위시하여 각 학교 언론기관 종교계의 지구백여명의 따뜻한 관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났다.

계몽대와 문자보급반

교재는 한글 통일안대로

조선안에 많은 문맹(文盲)의 눈을 떠워주려고 한 연중행사처럼 하여오는 동아일보사에서 학생계몽대, 조선일보사에서 문자보급반, 예수교회에서 하기가동성경학교는 금년 여름에 도전과 같이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 가큰질 교재(教材)는 모두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지한 철자법을 썼다.

조영천 박사 저작

영어 발음법 출판

승실전문학교 교수 조영천(曹應天)박사는 미국에서 십여년동안 이화학(理化學)을 연구하여 이학박사의 학위를 얻었는데, 그사이 과학을 연구하는 여가에 특별히 영어 발음법에 유익하여 여러해동안 이를 연구한 결과, 영어 발음법이란 책을 취작하였는데, 책이 우리 조선사람의 영어 발음에 관하여 규칙적 계단을 해석한것이 특색이요, 그 과학적 해석에는 사양어학서류를 참고한밖에 조선어만인 한글 철자법으로 장지영(張志映)씨의 학설을 좇았다. 그리고 이 책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 출판부의 발행으로 독서계에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부질없는 수작

얼마전에 진고개 명치제과회사란대서 신사 삼십여분이 모여서 한글 철자법 반대회란것을 하였다 한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아예 문제도 삼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찌되어가는 형편이나 보았더니, 이미 신문지상에까지 기사가 올라서 누구나 다 알게 되었으니, 부질없는 일 같으나 위선한마디만 말해보자. 그분들은 이리구 저리구 잠시간 잡문을박을한 끝에, 성명서를 발표할것을 작정하고, 조선문기사정리기성회(朝鮮文記寫整理期成會)란것을 조직할것을 작정하고, 조선글 기사법을 정리할 위원(委員) 열 다섯 분을 뽑아서 우리글 정리의 큰 소임을 맡기고 흩어졌다고 한다. 그 뽑힌 위원은 누군고 하니

- 尹致昊 尹定夏 權寧仲 李肯鍾
- 李升兩 柳錫東 文一平 白南奎
- 朴容九 李相協 曹秉相 鄭泰應
- 崔泰永 金鳴鎮 具滋玉

하는분들이다. 말과 글을 정리하는것이 어떻게 중하고 큰것이판대 위원되신분들이 여간 신중한데도 로써 하지 아니할것을 믿으며, 학리(學理)에 맞고 어법(語法)에 맞고 역사적(歷史的)근거가 있고 실용에 편리할 가장 합리적(合理的)기 사법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때 발기인으로 모인분들을 보면,

다른것은 모르되 말과 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분이 몇이 안된다. 그 전문방면으로나 직업방면으로나 아무리 보아도 조선어 연구가라고 지칭할만한이는 별로 없는것 같다. 기사법 정리의원이 더욱 그러하다. 무엇이든 근거로 한글 철자법 반대를 운위(云謂)하였던고. 아무리 통제(統制)없는 오늘날 조선의 사회이기보니 각기 저마다 만능(萬能)으로 무불간섭주의(無干涉主義)를 하면 그만일것을 알았던가.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잘게 말하고자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때에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고 과연 그렇구나 하였다. 그것을 여기에 한번 전제하여한다 곧 「各自의 領域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다.

文明社會의 一特色은 分業이다. 文明의 程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分業은 보다 더 細分되는것이 定則이다. 그 根本理由는 勿論文明할수록 生活이 複雜해지는 同時에 또 온갖 事物이 精細性的의 增加를 必要로 하는것이기 때문이다. 혼자서 自作自給하기에는 生活이 너무나 지나치게 複雜한 同時에 또 한사람이 아무 일이나 한가지에 成功하려면 一生을 專門的으로 研究하고 努力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니, 自然人類生活은 그 分業의 度數를 더 加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도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廣

대답과 대답

【대답】 우리말로 된 사견을 사고싶은데, 내용이 충실하고 신철자 통일안으로 된 것이 누구의 편찬이며 어디서 팔니까. (일독자)

【대답】 부끄러운 말로 안직 그러한 책이 없습니다. 조선어사건편찬회를 사오면 편찬에 우리가 발기하고 지금까지 편찬에 노력하고 있으나 언케 완성될는지 모릅니다. 위선 통일안(統一案)의 철자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조선어학회에서 철자사건을 편찬하는중에 있습니다. 오대지 아니하며 그것이 출판될 것입니다. (이윤재)

【대답】 어떤 식점의 서잡지책 가운데 정음(正音)이란 것을 좀 뒤쳐보았더니, 거기에 한글과란 말이 많은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글과 밖에 또 무슨 과가 있는지요.

(관철동(欲知生))
【대답】 『한글과』라 말하느 것이 역시 한글과입니다. 한글이라 하는 말은 별말이 아니요 조선말이란 말이니, 누구라도 조선말을 쓰는지 아니면 한글과와 별것입니다. 정음(正音)이란 것은 조선말 곧 한글로 쓰

지 아니하고 어느나라말로 쓰기에 한글과란 말을 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구하는이로 의왕에는 다소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일안(統一案)이 나서다 그대로 쓰기로 되었으니, 언케는 무슨 과별을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친민중으로 통일하게 쓰이 안(案)에 어진 무슨 만주장이 있다면 그는 소의이설과(異說派)일 것입니다. (이윤재)

【대답】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된 점을 묻습니다.
一, 옥두(玉樓) 낙뢰(落雷) 영릉(英陵)은 어떻게 쓰면서, 의논(議論)만은 왜 '의논'으로 씁니까.

二, 부록 一 표준어 一 폐에 나비(幅)란 말도 있습니다.
三, 부록 一 표준어 四 폐의 갖은과 八의 가진(各色)과가 어떻게 됩니까.
四, 제 七 절 「갓양」, 「갓머」과 부록 八의 「갓」과 제 二 七 항 부기에 「갓없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東京 池鳳旭)

【대답】 一, 한자음(漢字音)은 모두 표음식(表音式)으로 하게 되는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옥두, 낙뢰, 영릉」이라고 썼으면 더욱 좋겠으나, 그렇게 하면 너무 어지러

워져서 나중에는 옥두, 낙뢰까지에 이를 염려도 있게 될 것이므로, 다만 「은」 두음(頭音)인 경우에만 표음식을 쓰고 그 밖에는 다 원음(原音)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고 의논(議論)은 우리가 일체로 말할 때에 「의논」이라 하며, 또 「의론」이라 할 때도 있으나, 「의논」의 상의한다는 의미로, 의론은 존재한다는 의미로 달리 쓸수 있는 것입니다.
二, 「나비」는 「넓이」의 변형된 말이니 이것의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三, 「갓양」은 구비(具備), 하단 말이요 「가진」은 여러가지란 말도 매우 많습니다.
四, 「갓양」이 갓(冠)의 양(緣), 「갓머」는 갓(柏實)으로 맨 든 머(飾)이란 말이며, 「갓없다」는 혹, 껍스럼다(라)도 하니 쓸때 없다(無益)라 하는 뜻입니다. (이윤재)

주의

이 「블음과대답」난을 이용하여 불을 실어는 반듯이 아래의 몇가지를 지켜 주시오.
一, 불음은 반듯이 한글에 관한 것에만 한함.
二, 一 회의 불음을 많어도 세 가지 이상은 하지 말라.
三, 한번 대답한 것이면 재별 묻지 말라.
四, 용지는 엄치로 할림. 후편지의 도봉할 경우에는 별지(別紙)로 할라.
이상의 어기면 물서(浚書)하는 일도 있음.

대한範圍에 一人萬能의 行해지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文明社會일수록 分業은 또 다시 分業을 낳고 專門은 또 다시 細分되어 極端의 分業 極端의 專門으로 邁進하고 있는 것이다. 쉬운 예를 한개 들어 말하면, 어떠한 未開社會에 있어서는 아직도 宗教와 醫藥과 政治가 混同되어 있는 反面에 文明한社會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分業으로 된 것은 벌써 옛날 일이요, 最近에 와서는 醫學 한가지에 있어서도 內, 外, 皮, 耳, 目, 口, 等等으로 細分에 細分을 加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文明人의 特徵을 말하면 (一) 무슨 일이나 專門家를 信用하는 것 (二) 專門家 아닌 사람은 信用하지 않는 것, (三) 各個人이 專門的 知識과 活動으로 努力을 集中하는 것, (四) 自己 專門이 아닌 일에는 허덕대고 參涉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가 있겠다. 個人이 모두 이러한 觀念을 가지고 그대로 實行하는 社會라야 그 社會는 더한 文明해질 수 있고 더한 榮榮 할 수 있는 것이다.

슬픈 일로 우리 朝鮮에는 一人萬能의 志士가 너무나 많은 것이 큰 病痛이다. 어떠한 한 方面의 活動 또는 寄與로써 그 이름이 民衆에게 알려지면 그는 곧 民衆의 萬事都監으로 自處하는 傾向이 있다. 더욱이 그 背後에는 어느 程度까지의 名譽를 巧妙히 利用하여

서 一種의 私腹을 채우려 하는 무리들의 陰謀 蠢動이 있어가지고여 거기 이름이 오르느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는 비인功名心에 나부끼는 몇몇 사람을 치켜세워가지고 民衆을 愚弄하는 일이 非一非再이다.

【博士님이 會社를 한다니 우리 다 가지 投資합시다!」하여 博士 萬能論에 넘어갔다. 구만야야 一生을 애써 蓄積했던 財産을 통털어버렸다는 일은 海外 同胞 가운데 十年前에 있었던 일로 아직도 우리 記憶에 새겨져와, 現在에 와서도 역시 우리 民族가운데는 그러한 一人萬能 信條가 많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은 將來를 爲하여 憂慮할 일이다.
文士가 政治論에 뛰어들기도 일수요, 宗教家가 科學論에 한말 내 두르기도 일수요, 商業家가 教育論을 떠들러 泰然히 하는 이 混亂된 朝鮮社會를 어더나 比할가?
有志는 먼저 各自 領域을 지켜 範圍 밖을 나가는 妄動을 避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 筆적 저기 筆적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眞實味를 찾을 수 없고, 그 結果로는 그의 努力을 疑心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民衆을 그러한 一人萬能論으로 愚弄하던 時期는 하루바삐 過去의 일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또한 民衆으로서의 저기 對한 嚴重한 監視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될 줄 안다.

朝鮮社會도 앞으로 發展을 보려고하면 이런 一人萬能의 難症을 退治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有志는 먼저 各自 領域을 지켜 範圍 밖을 나가는 妄動을 避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 筆적 저기 筆적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眞實味를 찾을 수 없고, 그 結果로는 그의 努力을 疑心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民衆을 그러한 一人萬能論으로 愚弄하던 時期는 하루바삐 過去의 일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또한 民衆으로서의 저기 對한 嚴重한 監視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될 줄 안다.

投稿歡迎

本誌는 讀者 여러분의 原稿를 기다립니다。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이 紙面을 통하여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一、研究論文。 한글 연구에 관한 意見 發表。

一、感想文。 本誌나 혹 다른 書籍을 읽고 感想된 것。 通信文。 한글에 관계된 것으로 本社나 知友에게 편지하는 것。

一、研究資料。 地方 사투리, 傳來 童話 民謠, 傳說, 古談 等 其他。

한글마춤법등의일안特輯

(한글 第一卷第十號 特刊) 定價 十五錢

朝鮮語學會에서 往年 한글 맞춤법 등일안을 制定 發表한 것은 朝鮮 文化史上에 新記錄을 지은 것이다。 이 빛난 事業을 永代에 保存하기 위하여, 이 案을 制定한 經過 事實과 統一案 全文과 이를 發表할 때의 記事 및 當時 一般 輿論을 蒐集하여 特輯을 發行한 것이니, 이것이 朝鮮語學史上 가장 貴중한 文獻이 될 것이다。 한글 맞춤법 등일안이 어떻게 생기었으며 全社會에 어떠한 衝動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는 꼭 한번 보기를 바란다。

青年常識叢書

朝鮮歷史	全	二十錢
西洋歷史	全	二十錢
世界地理	全	二十錢
政治篇	全	二十錢
經濟篇	全	二十錢
法律篇	全	二十錢
哲學概論	全	二十錢
社會學	全	二十錢
人體生理	全	二十錢
家庭衛生	全	二十錢
新體書翰文	全	二十錢
朝鮮語文法	全	二十錢
物理解	全	二十錢
化學	全	二十錢
商業	全	二十錢

農村夜學教科書

勞働讀本	一	十五錢
勞働讀本	二	十五錢
勞働讀本	三	二十錢
勞働算術	上	十五錢
勞働算術	下	十五錢
漢字初歩	全	二十錢
農勸理科	全	二十錢
農業初歩	全	二十錢
勞働書翰	全	十五錢

申明均氏 編

한글 歷代選

定價 一圓

內 (一) 訓民正音, 龍飛御天歌 (二) 月印于江之曲 (三) 杜詩諺解 (四) 訓蒙字會 (五) 松江歌辭 (六) 四書諺解, 小學諺解 (七) 創世紀

이 책은 우에 쓴 諸書를 한대 모은 것인데, 一이 민음측한 原本을 구하여 全部 혹 一部의 倣 그대도 翻印한 것이다。 얼마나 稀貴한 珍書인가? 우리 文學과 語學의 研究에 大 功을 이루고 또 한글의 沿革을 알고자 하는 이는 勿論이요, 其他 누구든지 한번 읽고 永遠히 간수하지 勿지 못할 國寶이다。

申明均氏 編

周時經先生遺稿

定價 一圓

內 先生傳記, (朝鮮) 語音學

容 朝鮮語文法, 말의 소리

이 책은 上記와 같이 先生의 傳記와 著書를 한대 모은 것이다。 朝鮮語學會에서 綴字法 統一案이 發表되고, 國定教科書로 부러 書籍, 新聞, 雜誌할 것 없이 모두 改正 綴字를 用게 된 今日에 우리는 새삼스라이 周時經 先生을 感慕하고 紀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한글을 科學的으로 研究하여 바른 方法을 우리에게 指示한 이는 周時經 先生이다。 이 한 권으로 先生 一生의 業績을 다 잊을 수 있다。 한글을 研究하고자 하는 이로, 또 한글의 發展 意義와 方法을 알려 주는 이는 반드시 이 책을 備置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松江歌辭

定價 二十錢

內 宣廟朝 松江 鄭澈의 作으로, 朝鮮 文學의 精華가 될 珍書이다。 누구라도 한번 읽으면 無限한 興味를 느낄 것이다。 朝鮮 文學에 大 功을 이루고 또 한글의 發展을 勸한다。

京城花洞 一 二九番地

◎注文은 朝鮮語學會出版部로

振替京城一〇三六番

支社에 對하여

「한글」은 오로지 우리들 統一 및 普及을 天職으로 삼는다。 그런 同時에 天下에 同志를 求한다。 우리들 統一 및 普及을 爲하여 誠이 있고 熱이 있는 이면 누구든지 다 우리의 同志가 될 수 있다。 主要地마다 支社를 두어 同志와 서로 協力하고저 한다。 支社經營에는 別般 形式的 手續이 沒것이 없고, 다만 事業에 協力할 決心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에 뜻이 있는 이는 한번 書面으로 門기를 바란다。

價 定	一 部	五 錢
六個月	三十錢	반듯이 代金은 先金을 要함。
一 個 年	五十五錢	

昭和九年六月二十九日 印刷
昭和九年七月一日 發行

編輯兼 李允宰
發行人 李允宰

印刷人 金鎮浩

印刷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一 二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發行所 振替京城一〇三六番

總販賣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代金を 보내실 때

京城府花洞 一 二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 京城壹〇參六番으로 하시오